

##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장인수\* · 우해봉\*\*

### 초 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저출산 흐름과 맞물린 일·가정 양립의 높은 시의성과 개연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 1~5차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시장 참여 특성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양상의 추세를 실증적으로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부인)과 남성(남편)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시간 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절대값 차이는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모형 내에서 고려한 각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노동시장 참여 특성 변수로 설명되는 부분(explained)보다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unexplained)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 특성 중 비취업자 범주,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의 종단적 양상을 제시함과 아울러, 일-가정 양립 정책이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보다 개인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시장 참여 특성으로 설명되는 부분보다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의 비중이 더욱 크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은 여성과 남성 간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 각 개인의 성 이데올로기가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부, 가사노동시간, 경제활동 참여, 한국여성가족패널, 차이

\* 제 1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sescis@kihasa.re.kr)

\*\* 교신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aebongwoo@kihasa.re.kr)

## I. 서론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 분담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 추진되고 있는 제1, 2,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주된 내용으로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결과적 양상을 지양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제고하여 출산 이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경제활동에 대한 남편(부인), 부인(남편) 간 차이를 최대한 배제하고,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 분담이 보다 균등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적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 정책으로 이해된다. 관련 사례로서, 거시적 수준에서의 일, 가정 양립과 출산을 회복 간 정(+)적 관계에 대한 연구(Castles, 2003)와 미시적 수준에서의 시간 일 자리 이용 가능성과 출산 확률 간 관계에 대한 연구(Del Boca, 2002)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정책으로서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가정 양립의 높은 시의성과 중요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유배우 가사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 남편이 50분, 부인이 259분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각각 2004년/ 2009년 38분/ 43분, 275분/ 266분에 비해 지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남녀 간 절대 투입시간의 차이는 아직 200분 이상으로 현격하다(통계청, 2015). 특히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와 여성고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통계청, 2016a: 2016b: 2017)을 상기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감소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적 양상은 경제활동에 대한 현대적 흐름이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2인 생계부양자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아직 가사노동의 주체를 인식하는 저변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거나, 이를 바탕으로 가사노동이 부인의 전유물로서 인식되는 데 기인한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7.5%로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공평성의 개연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가사노동을 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남편은 전체의 16.4%에 머무르고 있는 설문 결과(통계청, 2015)는 이러한 논거를 지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직장 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시간에 대한 갈등적 상황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 분담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행동의 괴리는 앞서 언급한 저출산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 가정 양립 세무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남녀 간 격차, 가령 남녀 간 고용률 차이, 남녀 간 임금 차이 등의 노동시장 내 성차별 양상을 더욱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앞서 논의한 여성고용률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흐름 등의 사회경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출산, 양육 환경의 조화성을 제고하는 것은 이미 주요 정책적 목표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부 구성원 개인적 특성이 각각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와 차별(이하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성과 이와 관련된 이러한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격년으로 수집, 구축하고 있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부 구성원인 남편과 부인 각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시장 연관 특성과 가사노동시간 분담 간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와하카(Oaxaca, 1973), 블라인더(Blinder, 1973)가 남녀간 임금에 대한 차이와 차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인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을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 얀(Jann, 2008)의 해체기법을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차용하여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

분담과 차이에 대한 국내, 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3장에서 실증분석과 관련된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구축에 대해 제시한다. 4장에서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 1차~5차에 걸쳐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추세(중단)적 양상을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 연구의 요약 및 추가 사항을 언급하며 종합적인 정리로 마무리한다.

##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1. 이론적 배경

가계의 시간 배분에 대한 이론은 가계(household)가 재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임을 전제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기업의 비용 극소화 원칙(cost-minimization rules)에 따라 투입 요소인 재화와 시간을 바탕으로 (가계)재화를 생산한다는 일련의 매커니즘에 기인한다(Becker, 1965). 시간 배분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가사노동시간 역시 가계 내 다양한 생산활동을 위한 일련의 투입 요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로렌스 외(Laurens, De Rock, & Vermeulen, 2012)가 언급하고 있는 자녀 양육과 소비 간 배분에 대한 논의는 양육된 자녀가 가사노동시간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가계 생산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가사노동시간은 무급 근로시간(unpaid work hours)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 투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소득을 보장하는 근로시간(work hours)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에 대한 여러 이론적 논의는 이들 간 관계를 토대로 제시된 바, 근로시간이 적은 배우자가 더 많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투입한다는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Hiller, 1984; Barnett, 1994), 더 적게 버는 배우자가 더 많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투입한다는 상대적 자원 이론(relative resources theory) (Brines, 1993), 또는 자원 교환 이론(resource exchange theory), 이와 유사하게 가계 소득에 덜 기여하는 배우자가 더 많이 가사

노동을 한다는 경제 의존성 모형(the economic dependency mode) (Brines, 1994)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는 여러 연구에서 아직도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성 이데올로기가 사회문화적 풍조와 맞물려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서 아스베와 멘카리니(Aassve & Mencarini, 2014), 에버슨과 너모(Evertsson & Neramo, 2014)는 이러한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 이데올로기의 굳건한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해된다.

## 2.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선행연구

한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후기산업사회는 사회변동의 단계적 양상에 대한 마지막 사회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본 단계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듯,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 배분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었다(Walker, 1973; Abdel-hany & Nickols, 1983; Sanik, 1981; Kamo, 1994; Kamo, 2000; Stafford, 1983; Vanek, 1974; Treas & Drobnic, 2010; Coverman & Sheley, 1986; Blair & Lichter, 1991; Bianchi et al., 2000; Bittman et al., 2003; Aassve, Fuochi & Mencarini, 2014). 이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경험적인 특성을 띠며,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적 양상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사노동시간 배분 변화를 결정하는 주된 동인으로서, 특히 부부의 성평등 가치관과 부부가 모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의 부부 각 구성원의 근로시간이 앞서 제시한 수 개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경험적으로 공히 제시되고 있다.

1970년대, 80년대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구축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별다른 변화 없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산체즈와 카네(Sanchez & Kane, 1996)가 지적하고 있는 바, 불공평 양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성 역할 구분 인식에 기인하며, 최근 가사노동의 공평성 인지도에 대한 연구(이순미·김혜경, 2008) 역시 이러한 양상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사노동 분담 정도와 공평성 인지도 간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불균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으나 이를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로 나타났으나, 불균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33.5%로 나타나, 불균등 양상과 불공평 인식도 간 괴리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구축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매우 미미한 효과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아브텔 가니와 니콜스(Abdel-Ghany & Nickols, 1983)는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기혼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인의 가사 노동 시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남편과 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이들 간 가사 노동 시간의 차이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은 성별 차이에 근거를 둔 가사 노동 할당에 대한 일련의 역할 기대의 지속성이 가사 노동 시간 차이의 주된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여, 전통적 성 역할의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새닉(Sanik, 1981) 역시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정 내 가사노동시간 분화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직장 여성은 여전히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교환-협상 이론(exchange-bargaining theory) (Molm, Linda, & Cook, 1995; Emerson, 1987)을 가사노동시간 배분의 논리에 적용하면, 부인은 남편이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와 동일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와 반대의 양상을 제시한 비트만 외(Bittman et al., 2003)는 이론과 실증적 관찰결과와의 괴리에 대한 결과적 근거로서 여성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높은 범위에 속하는 그룹이 본 이론과는 반대의

양상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전통적인 남편 1인 생계부양자 모형이 아닌 여성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더 높은 유형(type)에 초점을 둠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양상을 반영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카모(Kamo, 1994)는 각 부부 구성원(배우자)에 대하여 앞서 논의한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자원 교환(resource exchange), 성 계층화(gender stratification)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가사 노동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기반으로 토대로 미국과 일본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교차문화적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 참여 특성 간 두 국가의 구조적 차이를 시사하며, 일본보다 미국에서 보다 부부 간 가사노동이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음을 실증적으로 관찰하였다.

한편, 아스베와 멘카리니(Aassve & Mencarini, 2014)는 국가별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cross-national pattern)이 다를 수 있으며, 실증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른 평등성 정도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 간 평등한 국가에서는 시간 가용성(relative approach) 이론과 상대적 자원 이론(relative resources theory)이 주된 배분 요인으로 작용하며, 배우자가 가계 소득이 불균등하게 기여하는 경향이 높은 국가의 경우 경제 의존성 모형(the economic dependency model)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노동시간 분담의 인식과 실제적 양상의 괴리는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반되어 노동 공급에 대한 단절성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취업 구조의 열악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 과제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심각성의 인식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도래 이전의 시기부터 지속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어 온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경미, 1989; 한경미, 1991; 홍성희, 1993; 허경옥, 1994; 차성란, 1998; 김효정, 2001; 김진옥, 2005; 성지미, 2006; 허수연, 2008; 은기수, 2009; 지민웅·조민수 2014; 이창순, 2014). 이들은 시간 제약 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등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상대의 소득과 근로시간, 성 이데올로기 등이 주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관련된 여러 국내 사례 역시 앞서 살펴본 국외의 사례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주부, 직장 여성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흐름과 결부지어, 이들의 가사노동시간의 배분 경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험적으로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노동시간과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가사노동시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취업과는 무관하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 한경미(1991)의 연구는 앞서 국외 사례에서 언급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구축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매우 미미한 효과와 그 궤를 같이 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시간 이외에 주목할 만한 요인은 가치관의 차이인데,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시각에 기인한다. 즉, 성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 역할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된 사례로서, 남편의 경우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태도 역시 주된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허수연, 2008)은 이러한 인과적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보다 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성 평등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지니고 있는 여성과 서로 부부인 경우, 남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당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경우 부인의 더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공평한 역할 분담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제시한 차성란(1998)의 연구 역시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가사노동시간 간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창순(2014) 역시 남편의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부인의 가사노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혼 부부에 대하여 이들의 가사노동 분담 양상과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은기수(2009)는



성 역할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가사노동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노정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첫째,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관점을 견지하여 사회경제적 흐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단적인 관점에서의 실증적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부부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다 구체화, 세밀화하여 이러한 특성을 나눌 수 있는 각 집단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부부 간 분담된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의 부부 특성 이외에도 각각의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가사노동 분담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남편과 부인을 각각 가정의 독립된 구성원이자, 노동시장의 참여주체로서 인식하여 가사노동시간 분담의 양상에 대한 요인을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외,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와 같이 사회경제적, 경제활동 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보다 더 나아가 이들 각각의 변수를 세부 범주화하여 이들 각 요인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살펴본다.

### Ⅲ. 자료 및 방법

#### 1. 분석자료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이들의 경제활동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 연관성, 그리고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여성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한국여성가족

패널자료(KLoWF)를 사용한다. 본 자료는 2015년 기준 5차 자료까지 구축, 배포되었으며, 여성을 설문대상자로 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응답자 여성이 자신의 남편의 기본적 정보를 응답한 점에 착안하여, 여성(부인)과 남성(남편)에 대하여 교육수준, 직업 형태, 소득, 근로시간, 연령대와 같은 공통적인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분석자료로서 구축하였다. 분석대상의 경우 1차부터 5차까지 종단적 관찰을 수행하기 위해, 1차부터 5차까지 부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매 차수마다 부부의 합동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비록 동일 부부를 추적하는 것이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의 성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 부부를 지속 추적하는 것은 각 차수별 전체 표본의 대표성을 다소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과 동시에, 각 차수별 표본의 크기 차이에 따른 예측변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단적 비교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여성의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러한 차이가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해 크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동일 부부를 지속 추적하는 이른바 패널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차수마다 차이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패널 형태의 자료 구축이 아닌, 매 차수마다 부부의 합동 데이터(pooled data)를 구축하였다. 부부의 합동 데이터는 1차 자료부터 동일 부부를 추적하는 방법보다 각 차수 시기별 대표성을 높이며, 그 당시의 양상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수들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구성하는 남편, 부인 각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를 고려한다. 먼저, 연령은 전체 부부 자료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변수가 아닌 30대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참조집단)의 5범주 변수로서 투입하였다. 학력 역시 중졸 이하(참조집단), 고졸,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의 5범주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직업 특성 변수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취업자(참조집단)의 3범주 변수로, 개인 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참조집단),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의 6범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로 이상의 더미 변수로서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변수 중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직업 특성 구축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바, 이는 다음과 같다. 본래, 개인 소득과 개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원시자료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직역종사자의 세 범주에 대한 각각의 정보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병합한 변수를 생성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2차 데이터부터는 설문대상자인 여성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정보가 각 세 범주별로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본 자료는 개별 응답자의 일자리 이동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사노동시간 배분 간 연관성을 관찰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sup>2)</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분석 자료의 각 차수별 주요 특성은 하기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변수 구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 개개인의 성 역할 가치관, 성 이데올로기가 중요함을 인지하여 이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여성가족패널데이터는 (부부 구성원 여성의 경우)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일자리 특성과 같은 정보는 부인이 응답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이들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나, 결혼, 출산, 성 역할 등에 대한 가치관 변수는 여성 응답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남편(남성)의 정보 활용이 불가능함. 더욱이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적용한 해체기법의 세부 분석은 여성의 남성의 합동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 정보가 모두 투입되어야 하나 전술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밝힘.

&lt;표 1&gt; 분석 표본의 주요 특성

(단위: %)

변 수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3차 데이터		4차 데이터		5차 데이터	
	남성 (남편)	여성 (부인)	남성 (남편)	여성 (부인)	남성 (남편)	여성 (부인)	남성 (남편)	여성 (부인)	남성 (남편)	여성 (부인)
평균 가사노동시간(분)	28.06	254.01	25.09	232.32	21.56	213.94	17.92	159.88	19.18	154.11
연령(평균)										
30대 미만	3.18	7.64	1.82	5.40	0.81	2.34	0.53	1.66	0.44	0.98
30~39세	29.62	35.65	26.85	34.13	21.98	31.67	16.45	24.72	11.23	19.09
40~49세	30.48	27.48	31.38	28.47	35.30	33.15	36.04	36.45	35.34	37.61
50~59세	20.38	20.84	21.11	21.57	24.40	23.08	26.11	24.19	28.97	25.70
60세 이상	16.34	8.39	18.84	10.42	17.51	9.76	20.87	12.98	24.02	16.62
학력										
중졸 이하	22.30	28.73	23.05	29.59	21.64	27.34	20.96	26.79	20.48	26.18
고등학교 졸업	36.22	40.90	35.76	39.77	35.32	40.00	35.91	39.89	35.45	38.96
2년제 대학교 졸업	9.74	11.52	9.72	11.53	10.72	12.51	10.83	13.45	10.78	13.83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27.64	17.22	27.35	17.33	28.20	18.17	28.15	17.91	29.01	18.94
대학원 이상	4.10	1.63	4.12	1.79	4.12	1.96	4.15	1.96	4.28	2.09
직업 특성										
임금근로자	52.14	15.31	48.31	17.73	59.68	23.48	58.21	25.13	57.90	28.49
비 임금근로자	30.67	2.85	31.73	3.00	39.50	11.97	40.19	32.09	40.62	31.15
비 취업자	17.19	81.84	19.96	79.27	0.81	64.55	1.60	42.79	1.48	40.36
개인근로소득(월)										
100만원 미만	21.92	82.17	24.41	84.25	8.52	76.54	8.83	71.66	8.60	66.43
100만원~200만원 미만	19.39	10.34	19.85	9.41	21.41	14.85	18.40	17.96	16.93	21.23
200만원~300만원 미만	27.17	4.14	24.45	3.78	28.18	4.89	27.19	5.96	23.93	6.89
300만원~400만원 미만	17.49	2.20	17.65	1.76	21.31	2.30	20.70	2.57	22.49	3.36
400만원~500만원 미만	6.47	0.62	6.93	0.49	10.13	0.69	10.85	0.98	12.13	1.03
500만원 이상	7.56	0.53	6.70	0.31	10.44	0.73	14.02	0.87	15.92	1.07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	82.07	30.45	79.08	33.19	90.89	36.33	89.36	23.43	90.12	42.78
40시간 미만	17.93	69.55	20.92	66.81	9.11	63.67	10.64	76.57	9.88	57.22
사례 수	7,369	7,369	6,533	6,533	4,787	4,787	4,700	4,700	4,584	4,584
	14,738		13,066		9,574		9,400		9,168	

주: 1) 가사노동시간은 “육아를 포함해서 집안일(설거지, 청소 등)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여성(부인) 개인이 본인과 남편의 투입 시간을 각각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응답한 시간(단위: 분)을 가중평균한 값(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분)을 본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0의 응답을 모두 포함하였음.

2) 개인근로소득은 남편과 부인에 대하여 각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며, 0의 응답을 모두 고려하였음.

3) 평균근로시간은 남편과 부인에 대하여 각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초과근로시간을 더한 값임.

분석 표본의 주요 특성을 예측변수 범주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남성과 여성 공히 30대 미만, 30~39세의 분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부부임을 감안하면, 부부로 결합되는 이른바 결혼 형성 연령이 지속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음을 그 논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의 범주 분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과 대학원 이상 범주의 분포는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하여야 할 부분 중 하나로서, 직업 특성의 경우 여성의 비취업자 비율이 1차 데이터와 5차 데이터 간 약 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다(1차 데이터 평균 81.81% → 40.36%).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남성 1인 부양자 모형의 현실적 설명력이 감소하는 부분으로서 이해되는데,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6년 10월 현재 유배우 1,188만 4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533만 1천 가구로 2015년 10월 기준 대비 12만 5천 가구(약 2.4%) 증가한 부분 역시 본 맥락과 맞물려 있다(통계청, 2015)<sup>3)</sup>.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남편)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 데이터 기준 52.14%에서 5차 데이터 기준 57.50%로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인 반면, 여성(부인)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같은 기간 내 15.31%에서 28.49%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각 범주별로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월 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범주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82.17% → 66.43%), 남성과 여성 각 범주에서의 비중의 절대값 차이는 여전히 현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논거로서, 여성의 경우 임시, 일용직 내지는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이러한 분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임시, 일용직, 부업의 형식을 띠는 직업의 경우, 전일제에 비하여 다소 소득금액이 낮게 형성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 형성

3) 통계청(2017).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되어 있는 남녀 임금 격차의 소위 차별적 요인에 기인한 부분도 이러한 분포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모든 소득 구간별 범주에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은 앞서 언급한 직업 특성의 세부 범주별 비중의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5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개인소득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평균값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여성의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직업 특성에서의 비취업자 비율 감소, 임금/비임금근로자 비율 증가, 개인근로소득의 증가 양상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양상으로서 해석할 수 있으나, 다만, 남성의 경우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의 비율이 미세하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8%p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실효성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 감소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성의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최근 데이터의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차이 역시 현격하다.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연령, 학력, 직업 특성, 개인근로소득,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본 모형에서 고려하는 대부분의 예측 변수 범주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는 이후에 살펴볼 남녀 가사노동시간 차이를 유발하는 주된 영향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4)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원시자료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공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추세적 관찰이 어려워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힘.

## 2. 분석방법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와 모형 내의 예측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분해하기 이전에, 실제 부부 구성원 개인의 가사노동시간 함수 추정을 선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녀 대상의 자료를 모두 합동으로 통합한 (pooled) 자료를 바탕으로 그룹을 나누는 기준 변수인 성별을 포함한 모든 예측변수를 투입한 최소자승회귀모형(OLS)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설명되는 부분)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는 다음의 수식을 적용하였다.<sup>5)</sup> 하기된 식 1 중  $\overline{Y^{wife}}$ ,  $\overline{Y^{husband}}$  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상 선형 종속변수)의 평균을 각각 뜻하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설명되는 부분(explained)인 첫번째 항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unexplained)인 두번째, 세번째 항으로 각각 구분됨을 보여주고 있다.

$$\overline{Y^{wife}} - \overline{Y^{husband}} = E(X_{wife}) - E(X_{husband})' \beta^* + E(X_{wife})' (\beta_{wife} - \beta^*) + E(X_{husband})' (\beta^* - \beta_{husband})$$

식 (1)

이때,  $\beta^*$ 는 부인과 남편 그룹 간 예측변수의 차이의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차별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차이를 반영하는 계수 벡터를 뜻하며, 본 연구는 와하카와 랜섬(Oaxaca & Ransom, 1994)이 제시한 바에 따라, 부인, 남편 그룹의 자료를 모두 통합한 합동(pooled) 모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값( $\beta^*$ )을 적용하였다. 또한 1) 부인 평균 - 남편 평균인지, 2) 남편 평균 - 부인 평균인지에 따라 세부 예측변수별 기여도의 값이 상이하게 도출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각 범주별 그룹의 평균의 차이를 양(+)의 값으로 사전적으로 전제하고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즉,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많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평균 -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평균을 전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5)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해체기법 모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ann (2008), Blinder (1973), Oaxaca (1973), Oaxaca & Ransom (1994) 등을 참고하면 됨.

#### IV. 분석결과

먼저, <표 2>는 각 데이터 차수별 남성과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다만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가장 최근인 5차 데이터에서 이전 데이터의 결과보다 미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17.92분 → 19.19분). 남성은 1차 데이터 기준 평균 28.07분에서 5차 데이터에서 19.19분으로 약 9분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254.02분에서 154.12분으로 약 10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절대적 감소 추세는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에서 이미 언급한 바, 여성의 직업 특성에서의 비취업자 비율 감소, 임금/ 비임금근로자 비율 증가, 개인근로소득의 증가 양상 추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의 양상을 살펴보면, 관찰 시작 시점인 1차 데이터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무려 225분으로 하루 평균 약 4시간에 육박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5차 데이터에서도 약 2시간 14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대비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은 미세하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약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매우 현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각 차수별 남녀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1~5차 데이터)

(단위 : 분)

구 분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3차 데이터	4차 데이터	5차 데이터
남성(남편)	28.0697***	25.0944***	21.5664***	17.9203***	19.1873***
여성(부인)	254.0182***	232.3233***	213.9419***	159.8829***	154.1154***
차이	225.9484***	207.2288***	192.3755***	141.9626***	134.9280***
남편/ 부인 비중	11.05%	10.80%	10.08%	11.21%	12.45%
총표본수	14,738	13,066	9,574	9,400	9,168
부부 수	7,369	6,533	4,787	4,700	4,584

주 : \*\*\*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뜻함.



〈표 3〉, 〈표 4〉, 〈표 5〉는 각각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최소자승회귀모형(OLS),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해체기법, 개별 예측변수별 해체기법의 분석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3〉은 분석대상 남성(남편), 여성(부인)을 모두 통합한(pooled) 총 사례 수에 대한 가사노동시간의 결정 방정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바, 1차 데이터~5차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분석결과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예측변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예측변수별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참조집단인 여성에 비해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5차 데이터 평균 135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녀 간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추세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조집단을 60세 이상 집단으로 설정한 연령 범주에 대해서는, 1~3차 데이터까지는 모든 범주에서 30대 미만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30~39세의 영향력이 가장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5차 데이터에서는 30~39세 다음으로 40~49세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 범주에서는 대체적으로 2년제 대학교 졸업의 범주의 연관성이 가장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차 데이터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연관성이 가장 유의하게 높았고, 이후 다소 변화하여, 3차 데이터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연관성이, 4차 데이터에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의 범주의 연관성이 각각 가장 유의하게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명확한 일관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학력과 가사노동시간은 유의하게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한 직업 특성 범주에서는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비임금근로자 범주의 유의한 영향력이 3차 데이터까지 지속 나타났다가 이후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비취업자 범주는 관찰기간 내내 지속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향력의 정도는 증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1차~5차 데이터 모두에서 월 평균 개인근로소득은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 즉, 월 평균 개인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2차, 4차 데이터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완전한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이 둘 간의 연관성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범주 역시 평균 가사노동 시간과 부(-)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또한 각 범주와 평균 가사노동시간 간 연관성은 거의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소득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추세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 연령과 학력은 각각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간 연관성에 대한 추세가 명확하지는 않은 특성을 보인다.

<표 3>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최소자승회귀 모형(OLS) 분석 결과(pooled)

변 수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3차 데이터	4차 데이터	5차 데이터
	$\beta$	$\beta$	$\beta$	$\beta$	$\beta$
성(남성=1)	-169.5757***	-165.5098***	-123.7533***	-111.3402***	-111.3499***
연령(ref=60대 이상)					
30대 미만	143.9726***	148.2493***	141.7584***	16.7540***	9.2389
30~39세	95.7654***	88.0021***	80.7392***	30.3272***	21.2977***
40~49세	24.9809***	17.6405***	22.0108***	16.0813***	10.4784***
50~59세	8.6860*	.8992	9.7421**	7.9747***	5.5621***
학력(ref=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18.1196***	13.5945***	16.7815***	5.8457***	6.2833***
2년제 대학교 졸업	36.3881***	34.6543***	32.1926***	8.4845***	7.9202***
4년제 대학교 졸업	35.4105***	19.4253***	29.9493***	10.7636***	9.8100***
대학원 이상	48.7493***	26.2056***	35.3674***	9.6923**	9.0184**
직업특성(ref=임금근로자)					
비 임금근로자	29.2238***	30.0391***	8.6053***	-.2609	1.5840
비 취업자	18.6811***	26.8841***	37.1320***	28.1926***	19.7151***
개인근로소득(월)					
100만원~200만원 미만	-31.3070***	-13.3760***	-17.8603***	-6.4137***	-11.6548***
200만원~300만원 미만	-37.1065***	-21.3657***	-33.7969***	-16.4745***	-19.3194***
300만원~400만원 미만	-36.7269***	-14.3626**	-35.9042***	-18.9002***	-20.1918***
400만원~500만원 미만	-37.9151***	-12.4677*	-33.5846***	-18.9304***	-23.4721***
500만원 이상	-43.8853***	-11.6400	-37.5986***	-20.7788***	-24.3183***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	-42.6902***	-32.5450***	-32.3424***	-8.6176***	-4.5107**
상수항	184.6356***	166.8250***	151.0175***	131.7515***	137.4634***
$R^2$	0.4184	0.4461	0.4996	0.5968	0.6296
adj $R^2$	0.4178	0.4454	0.4988	0.5961	0.6289
F-value	622.99***	618.11***	561.33***	816.84***	914.82***
사례 수	7,369	7,369	6,533	6,533	4,787
	14,738	13,066	9,574	9,400	4,584

주: 1) 개인근로소득 범주는 100만원 미만의 집단이 참조집단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뜻함.

<표 4> 해체기법 분석결과

구 분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3차 데이터	4차 데이터	5차 데이터
설명되는 부분(a)	56.5775***	41.7190***	68.6221***	30.6223***	23.5781***
설명되지 않는 부분(b)	169.3709***	165.5098***	123.7533***	111.3402***	111.3499***
차이	225.9484***	207.2288***	192.3755***	141.9626***	134.9280***
설명되는 부분 비중	25.04%	20.13%	35.67%	21.57%	17.47%
설명되지 않는 부분 비중	74.96%	79.87%	64.33%	78.43%	82.5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은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유의함을 뜻함.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표 4>와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는 1차 데이터부터 5차 데이터까지 각 모형에서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대하여 소위 “차이”와 “그 이외의 부분”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즉, 모형 내에서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 시장 참여(직업) 특성이 가사노동시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이른바 설명되는 부분(explained)과 그 이외의 설명되지 않는 부분(unexplained)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가령 1차 데이터의 차이의 양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남녀 간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인 225.95분에 대하여 모형 내에서 고려한 예측변수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각 예측변수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차이의 25.04%인 56.58분으로 도출되고, 그 이외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은 전체의 74.96%인 169.37%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의 추세적 양상을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데이터에서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설명되지 않는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과적 양상은 본 연구의 모형에서 통제 및 고려하지 않은 외생적인 요인이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대한 양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 특성을 반영하는 예측변수로서 종사상 지위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을 적용하면 분석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및 사회 환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측변수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 시장 참여와 같은 경제활동 변수와 같은 객관적 측면의 요인의 영향력보다 가치관, 세계관 같은 이데올로기 측면 등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본 연구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부 구성원 개개인의 성 이데올로기를 대리할 수 있는 결혼, 출산, 가족 구성원 역할 등에 대한 가치관 변수의 추가적 고려의 필요성과 함께, 앞서 논의한 가사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시간 가용성(relative approach) 이론과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s)이론, 성 이데올로기 이론과 같은 여러 이론 중 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논의가 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각 차수별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결과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관련 이론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성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치관과 같은 개인의 다른 특성과 함께 가사노동시간의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의 성격에 가까운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지역사회, 노동시장 특성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을 소위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본다면,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심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성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과 자원 교환 이론(resource exchange), 경제 의존성 모형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설명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성 이데올로기의 영향력과 같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부 간 가사 분담에 대하여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양상이 비교적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조사 결과(통계청, 2015. 2014년 남편 기준 47.5%, 16.4%)는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양상이 적은 현실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근거한 가치관이 발현된 결과이자, 여전히 성 역할을 구분하는 가치관이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현격하게 야기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합리적 근거에 기인한 차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소위 차별에 가까운 성격의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성 역할만을 고수하는 가치관 내지는 이러한 가치관이 발현된 결과적 양상 등으로 해석하면, 본 연구방법에서의 차이가 아닌 차별을 의미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실증적 검증이 더욱 명확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5>를 통하여 개별 예측변수별 해체기법의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예측변수의 범주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모든 분석대상을 합동으로 구성하여 분석한 최소자승회귀모형의 분석결과에서의 유의한 예측변수의 영향력과 비교적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유의하고 비교적 큰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예측변수의 범주를 살펴보면, 연령의 1차~3차까지의 30대 미만, 모든 관찰기간에서의 30~39세 범주, 직업 특성에서의 비취업자 범주, 월평균 개인근로소득의 거의 모든 범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범주가 상대적으로 유의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범주별로 기여도의 추세적 양상을 살펴보면, 비취업자의 기여도 비중은 증가, 감소를 반복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의 기여도 비중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반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기여도는 지속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남녀 간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대하여 해체기법에 따른 각 예측변수 범주별 기여도를 해석하면, 가령 1차 데이터의 비취업자의 기여도인 12.07분은 비취업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지는 이른바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Hiller, 1984; Barnett, 1994)과 남녀 간 비취업 여부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적인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추세에 적용하면, 시간 가용성과 남녀 간 비취업 여부의 차이의 복합적인 영향력이 최근 더욱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월 평균 개인근로소득의 200만원~300만원 범주의 분석결과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대적 자원 이론(relative resources) (Brines, 1993), 자원 교환 이론(resource exchange), 경제 의존성 모형(the economic dependency model) (Brines, 1994)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남녀간 개인근로소득의 차이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부(-)적 관계와 남녀 간 개인근로소득의 차이가 야기하는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의 기여도에 대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녀 간 주당 근로시간의 차이가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주당 근로시간 자체가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복합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예측변수별 세부 범주의 양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부 예측변수 범주별 기여도는 이론적 토대에 따른 일관된 해석이 어렵고, 결과 해석이 어려운 데 기인하여(Fairlie, 2005) 본고에서는 따로 구체적인 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종합적으로, 모형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부분(explained)을 중심으로 연령, 학력, 직업 특성, 월 평균 개인근로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유의한 기여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연령 중 30대 미만, 30세~39세, 직업 특성 중 비취업자, 월 평균 개인근로소득,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과 같은 이상의 예측변수가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각기 다른 추세적 양상이 나타났다.

<표 5> 개별 예측변수별 해체기법 분석결과

변수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3차 데이터		4차 데이터		5차 데이터	
	$\beta$	비율	$\beta$	비율	$\beta$	비율	$\beta$	비율	$\beta$	비율
연령										
30대 미만	6.4278	11.40%	5.3100	12.73%	2.1617	3.15%	.1889	0.62%	.0503	0.21%
30~39세	5.7701	10.24%	6.4119	15.37%	7.8259	11.40%	2.5100	8.20%	1.6725	7.09%
40~49세	-.7491	-1.33%	-.5130	-1.23%	-.4735*	-0.69%	.0650	0.21%	.2377*	1.01%
50~59세	.0400	0.07%	.0041	0.01%	-.1282	-0.19%	-.1527	-0.50%	-.1820*	-0.77%
학력										
고등학교 졸업	.8483	1.50%	.5451	1.31%	.7852	1.14%	.2325*	0.76%	.2206*	0.94%
2년제 대학교 졸업	.6468	1.15%	.6259	1.50%	.5783*	0.84%	.2220*	0.72%	.2418	1.03%
4년제 대학교 졸업	-3.6905	-6.55%	-1.9475	-4.67%	-3.0030	-4.38%	-1.1015	-3.60%	-.9887	-4.19%
대학원 이상	-1.2040	-2.14%	-.6097	-1.46%	-.7609	-1.11%	-.2124	-0.69%	-.1967*	-0.83%
직업 특성										
자영업자	-8.1298	-14.42%	-8.6305	-20.69%	-2.3693	-3.45%	.0211	0.07%	-.1499	-0.64%
비취업자	12.0772	21.42%	15.9461	38.22%	23.6661	34.49%	11.6129	37.92%	7.6641	32.51%
개인근로소득(월)										
100만원~200만원 미만	2.8337	5.03%	1.3963	3.35%	1.1715	1.71%	.0286	0.09%	-.5008	-2.12%
200만원~300만원 미만	8.5452	15.16%	4.4150	10.58%	7.8720	11.47%	3.4982	11.42%	3.2915	13.96%
300만원~400만원 미만	5.6169	9.96%	2.2820	5.47%	6.8253	9.95%	3.4261	11.19%	3.8630	16.38%
400만원~500만원 미만	2.2175	3.93%	.8034	1.93%	3.1711	4.62%	1.8688	6.10%	2.6063	11.05%
500만원 이상	3.0848	5.47%	.7447*	1.79%	3.6522	5.32%	2.7322	8.92%	3.6127	15.32%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	22.0374	39.09%	14.9349	35.80%	17.6474	25.72%	5.6821	18.56%	2.1353*	9.06%
설명되는 부분	56.3727	100.00%	41.7190	100.00%	68.6221	100.00%	30.6223	100.00%	23.5781	100.00%
연령										
30대 미만	8.3174	4.90%	5.1942	3.14%	2.2673	1.83%	.2584*	0.23%	.0272	0.02%
30~39세	44.7793	26.41%	37.1257	22.43%	28.0967	22.70%	8.6823	7.80%	3.9212	3.52%
40~49세	11.3727	6.71%	8.9327	5.40%	12.1193	9.79%	9.7655	8.77%	7.1830	6.45%
50~59세	3.2634	1.92%	1.4511	0.88%	4.3028	3.48%	3.4116	3.06%	3.6876	3.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4.9593*	2.92%	3.8959	2.35%	2.6862	2.17%	-.1495	-0.13%	-.4020	-0.36%
2년제 대학교 졸업	2.9991	1.77%	4.4985	2.72%	3.3175	2.68%	.4099	0.37%	.4424	0.40%
4년제 대학교 졸업	10.0271	5.91%	6.4930	3.92%	8.7416	7.06%	1.7910	1.61%	1.6479	1.48%
대학원 이상	2.2588	1.33%	1.4163	0.86%	1.7164	1.39%	.1400	0.13%	.0266	0.02%
직업 특성										
자영업자	8.2444	4.86%	10.1255	6.12%	4.2487	3.43%	-.6099	-0.55%	-.1059	-0.10%
비취업자	27.9535	16.48%	32.0109	19.34%	-1.9894	-1.61%	-1.6406	-1.47%	-.8478	-0.76%
개인근로소득(월)										
100만원~200만원 미만	-8.8764	-5.23%	-5.1881	-3.13%	-4.6900	-3.79%	-1.0160	-0.91%	-2.7722	-2.49%
200만원~300만원 미만	-10.8688	-6.41%	-6.3830	-3.86%	-9.7186	-7.85%	-4.0737	-3.66%	-4.8712	-4.37%
300만원~400만원 미만	-6.4685	-3.81%	-2.8196	-1.70%	-6.1645	-4.98%	-3.4912	-3.14%	-4.1783	-3.75%
400만원~500만원 미만	-2.0718	-1.22%	-.5420	-0.33%	-2.6060	-2.11%	-1.9162	-1.72%	-2.2048	-1.98%
500만원 이상	-2.7640	-1.63%	-.6791*	-0.41%	-3.3000	-2.67%	-1.7398	-1.56%	-2.6061	-2.34%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	-31.5338	-18.60%	-21.6909	-13.11%	-26.6720	-21.55%	-2.4081	-2.16%	2.1666	1.95%
오차항에 의한 부분	107.9638	63.68%	91.6683	55.39%	111.3971	90.02%	103.9266	93.34%	110.2358	99.00%
설명되지 않는 부분	169.5757	100.00%	165.5098	100.00%	123.7533	100.00%	111.3402	100.00%	111.3499	100.00%

주: 음영. \*은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유의함을 뜻함.

## V. 결론

다양한 부문에서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부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양상과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 시장 참여 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형의 변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남편), 여성(부인)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특성, 소득, 근로시간과 같이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과 자원 교환 이론(resource exchange theory), 경제 의존성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합동(pooled) OLS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체 기법(decomposition method)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설명되는 부분(explained)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unexplained) 중 설명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예측변수의 기여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체기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모형 내에서 고려한 예측변수가 설명하는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의 기여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여도에 대한 비대칭적 양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이를 배제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모형에서 고려한 남편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특정 연령대인 30~39세와 직업 특성 중 비취업자, 그리고 개인근로소득과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의 기여도가 부부 간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도의 양상을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비취업자의 기여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소득은 200만원 이상의 세부 범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여도의 양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설명되는 부분 중 해당 예측변수에 대한 부부 간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비취업자의 기여도가 증가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결과는 남녀 고용률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나, 다만 최근 5차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모든 예측변수 중 가장 큰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비취업 여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녀 고용률의 격차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 현격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00만원 미만의 상대적 저소득층을 제외한 월 평균 개인근로소득의 세부 범주의 기여도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범주의 기여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양상은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더불어 본 소득수준 범주에 대한 남·녀간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s theory) (Brines, 1993), 또는 자원 교환 이론(resource exchange theory), 경제 의존성 모형(the economic dependency model) (Brines, 1994)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이해된다. 아울러, 남편과 부인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서 아직 그 기여도가 유의하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된 방향으로서 이해되는 핵심성과지표 중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양성평등적 가사노동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남성, 여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시간 근로 문화와 관행이 변화될 수 있는 인식의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 감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주당 40시간 근로시간 이상의 기여도 비중이 각 데이터 분석결과별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은 유급근로시간이 남녀 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서, 남녀 유급근로시간이 공히 적어지고 있는 것과 유급 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작아지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합동 OLS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당 평균근로시간과 개인근로소득의 유의한 영향력은 여성의 근로시간의 증가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감소 간 연관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찰기간인 1차 데이터와 5차 데이터 조사기간 내 남편과 부인 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마지막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직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약 2시간 14분 정도로 현격하다.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양상과 부인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예측변수로서 투입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양상은 비교적 큰 차이로서, 아직까지 성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한 관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가사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시간 가용성(relative approach) 이론과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s)이론, 성 이데올로기 이론을 실증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 모형에서 고려한 부부 구성원 여성과 남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시장 참여 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소위 설명되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성 이데올로기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각 차수별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설명되는 부분의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비대칭적 양상과 맞물려 논의하면, 가사노동시간의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의 성격에 가까운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성 역할의 구분과 관련된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성 역할만을 고수하는 가치관 내지는 이러한 가치관이 발현된 결과적 양상으로 해석하면 여성과 남성의 가사근로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본 연구방법에서의 (차이가 아닌) 차별을 의미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 내에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단적 양상은 적어도 가사 근로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유급 근로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여 년 전 굿나우와 바워스(Goodnow & Bowers, 1994)가 제시한 바, 남녀 간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남성 내지는 여성의 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아닌 공정성(fairness), 실용성(practicality), 호불호(likes and dislikes)에 비롯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인식의 괴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분명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비록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주목하고자 적용한 방법론의 한계로 패널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본 연구결과가 보다 견고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연도별로 분리하여 각 차수마다 따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개별 부부들을 추적하여, 즉 패널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패널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이러한 자료의 구조에 맞는 패널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논의의 풍부함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개인의 근로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임금 변화, (유급) 근로시간 등과 같은 노동시장 참여 특성의 변화가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각 차수별 원시자료에서 남편과 부인 부부 모두의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대상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추후 여성의 경제 활동을 명확하게 고려하는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하여 근로 여부라는 주된 직업 특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저자들의 추후 연구 과제로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진욱(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 복지학. 제57권 제3호, 51-72.
- 김효정(2001). “직업에 따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아동가족복지연구소, 인간환경 복지연구 창간호, 51-68.
- 성지미(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29.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호, 145-171.
- 이순미·김혜경(2008).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의 영향요인 연구 - 기혼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0권 제1호, 1-25.
-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2호, 29-54.
- 지민웅·조민수(2014).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재인가?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여성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1-31.
-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9호, 139-152.
- 통계청(2015). 2015년 일, 가정 양립 지표 보도자료.
- \_\_\_\_\_(2016a). “맞벌이가구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에서 017.10.1. 인출
- \_\_\_\_\_(2016b). “여성고용동향”.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에서 017.10.1. 인출
- \_\_\_\_\_(2017).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보도자료.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1-13.
- \_\_\_\_\_(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171-190.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90-105.
-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177-210.
-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55-68.
- Aassve, A., Fuochi, G., & Mencarini, L.(2014). Desperate housework : Relative resources, time availability, economic dependency, and gender ideology across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00-1022.
- Abdel-Ghany, & M. Nickols, S. 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12(2). 159-167.
- Barnett, R. C.(1994). Home-to-work spillover revisited : A study of full-time employe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lair, S. L., & Lichter, D. 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Blinder, A. S.(1973). Wage discrimination :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8. 436-455.
- Brines, J.(1993). The exchange value of housework. *Rationality and Society*. 5. 302-340.
- \_\_\_\_\_(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design and nature*. Havard University Press.
- Castles, F.G.(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Cook, K. S., Emerson, R. M.(1987). *Social exchange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 Coverman, S., & Sheley, J. 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3-422.
- Del Boca, D.(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3). 549-573.
- Evertsson, M., & Nermo, M.(2004). Dependence within families and the division of labor : Comparing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72-1286.
- Evertsson, M.(2014). Gender ideology and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 care in Sweden.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27-949.
- Fairlie, R. W.(2005).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0(4). 305-316.
- Goodnow, J. J., & Bowes, J. M.(1994). *Men, women and household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er, D. V.(1984). Power Dependence and Division of Family Work. *Sex Roles*. 10. 1003-1019.
- Jann, B.(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

- Kane, E. W., & Sanchez, L.(1994). Family status and criticism of gender inequality at home and at work. *Social Forces*. 72(4). 1079-1102.
- Kamo, Y.(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348-378.
- \_\_\_\_\_ (2000). “He said, she said” : Assessing discrepancies in husbands' and wives' reports o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Science Research*. 29(4). 459-476.
- Laurens C., De Rock B., & Vermeulen F.(2012). Married with Children : A Collective Labor Supply Model with Detailed Time Use and Intra household Expenditure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2(7). 3377-3405.
- Molm, Linda, & Cook. K.(1995). Social Exchange and Exchange Network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pp. 209-235). Mass: Allyn & Bacon.
- Oaxaca, R.(1973). Male- 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 709.
- \_\_\_\_\_ (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 5-21.
- Sanchez, L., & Kane, E. W.(1996). Women's and men's constructions of perceptions of housework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58-387.
- Sanik, M. 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 1967- 1977.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10(2). 175-180.
- Stafford, K.(1983).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time on her household work tim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11(3). 257-266.
- Treas, J., & Drobnič, S.(Eds.).(2010). *Dividing the domestic: Men, women, and household work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nek, J.(1974). Time spent in housework. *Scientific American*. 231(5). 116-121.
- Walker, K. E.(1973). Household work time: Its implication for family decis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65. 7-11.

Abstract

## Difference in housework hours between married women and men and their influence factors

Chang, Insu\* · Woo, Haebong\*\*

Given the high probability of work-family compatibility associated with increase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and low birth rates,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ce of housework hours between Korean couple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coupl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1-5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ccording to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both males(husband) and females(wife)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housework hours, and the ratio of housework hours males' to wives increased only marginally.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absolute value of housework hours for men and wives is still remarkable. The difference in housework hours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creased gradually from unexplained to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regression model. Also we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non-employed categorical variable on housework hours is the highest among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show the longitudinal aspect of housework hours of husbands and wives, and suggests tha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should be promotive in an aspect of micro-motivated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individual's specific characteristics. Also, the pattern in which the ratio of unexplained part becomes larg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depth the effect of gender ideology on the difference of housework hours between women and men.

**Keywords :** couple, housework hours, economic activities, KLoWF, differences

---

\* First Author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